

보험

Sector Issue Brief

2026. 09. 04

관리급여 도입부터 경상환자 제도 개선까지

Check Point

- 9/10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시행
- 관리급여+경상환자: 보험손익 +1,500 억 내외 예상
- 금리상승 환경과 실적/제도개선에 더해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고조 → 보험주에 긍정적 투자환경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를 적용. 향후치료비 지급중단

- ▶ 9/10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치료절차 제도개선이 시행됨. 경상환자가 (1)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별도의 심사기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가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고, (2) 그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
- ▶ 한방치료를 중심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기한 없는 치료기간으로 인해 8주 이상의 장기치료자가 과도한 향후치료비를 수령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와 자동차보험 손익악화를 초래. 이에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도개편이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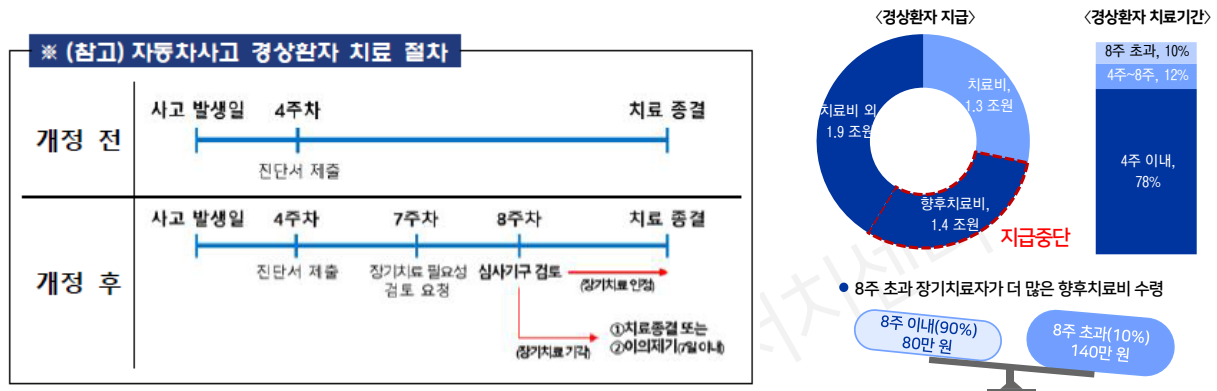
관리급여에 도입에 이어 경상환자 제도 개선까지. 회사별 보험손익 +1,500억원 수준 예상

- ▶ 경상환자 제도개선 효과로 주요 손보사들은 향후 1년간 자동차손익이 500억~1,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일부 회사의 연간 지급되는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규모만 해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 제도시행 직후부터 손해액 감소 효과가 나타나며, 대신 부작용(풍선효과)으로는 8주 이내 한방병원 입원 증가 및 실제치료비 증가, 휴업손해비 확대, 상해급수 11급 진단건수 증가 등이 예상됨
- ▶ 회사별 자동차손익은 지난해 하반기 적자로 전환한 이후 올해 상반기 흑자전환 하였으나 여기에는 운행량 축소와 장마지연에 따른 일시적 요인도 포함. 3~4분기에는 계절적 손해를 상승으로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나 일부 회사는 경상환자 제도개선 효과로 흑자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임
- ▶ 7월 관리급여 도입에 이어 9월 경상환자 제도개선 조치가 병행되면서 보험손익에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전망. 참고로 관리급여의 경우 8월 들어 긍정적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회사별로 향후 1년간 평균 800억원 수준의 예상차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 여기에 경상환자 제도개선 효과가 더해지면 주요 손보사의 연간 보험손익 규모가 1,500억원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금리상승 + 실적회복/제도개선 + 주주환원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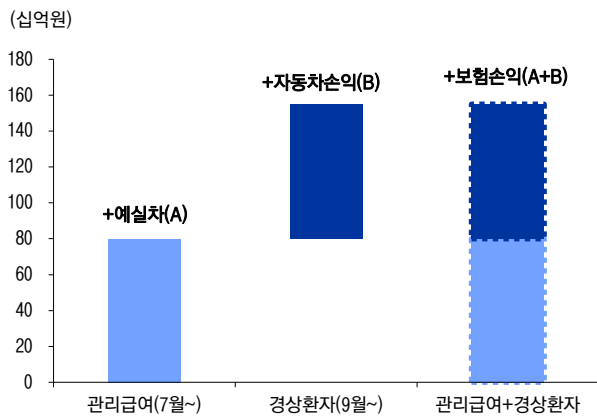
- ▶ 7~8월 연속적 금리인상 이후 국고채 3년 금리가 3.9%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보험업종에 긍정적 외부환경 지속. 상반기 생존보사 전반에서 확인된 보험손익 개선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손보사들은 제도개선 영향이 더해질 전망
-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기대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DB손보의 26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이후 타사들의 자본/주주환원 정책 구체화 시점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이 또한 업종 전반의 긍정적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험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유지

그림1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8 주를 도입 + 향후치료비 지급중단)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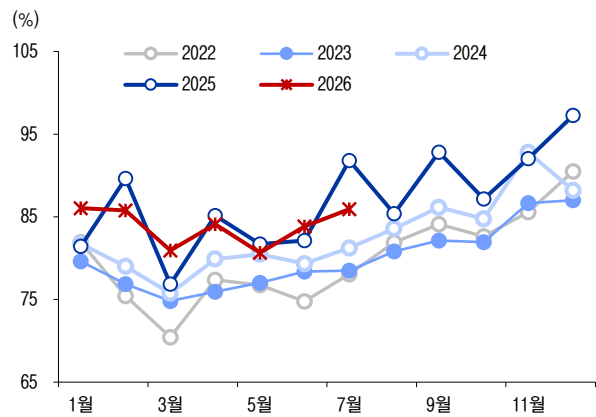
그림3 상위 손보사 관리급여 +경상환자 제도개선 영향 추정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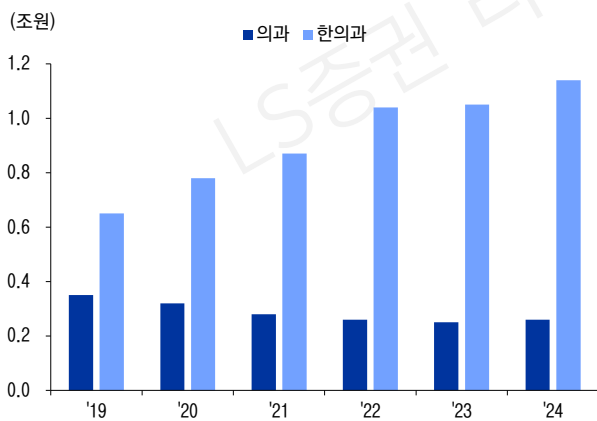
그림4 상위 손보사 평균 월별 자동차손해율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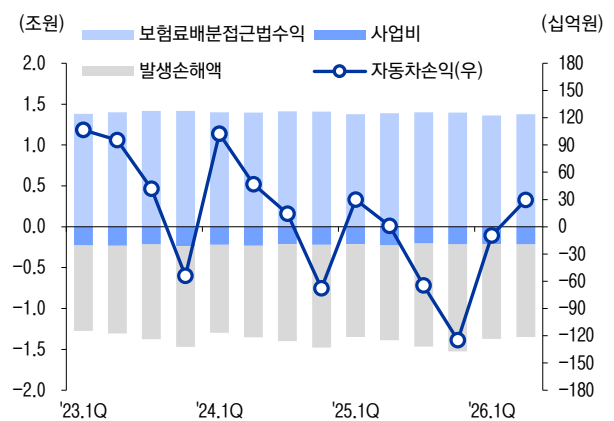
주: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기준

그림5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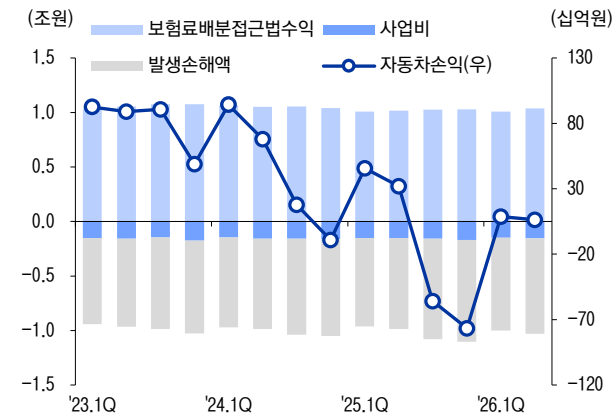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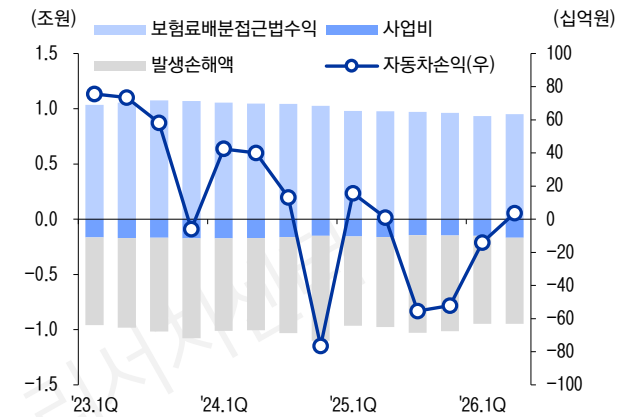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DB 손보 자동차보험 손익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손익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송).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0.3% 9.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7. 01 ~ 2026. 0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